

# 장례식장 조화 재활용 수십억 챙긴 납품업자 적발

## 광주경찰, 시내 43곳서 수거 후 되팔아온 일당 37명 입건

# 장례식 도중 진열된 조화 화환 30여개가 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에게 의해 트럭에 실려 나갔다. 이 화환은 도심 외곽에 있는 작업장으로 옮겨진 뒤, 시든 꽃을 빼내 새 꽃으로 채우는 작업과 화환 받침대 등을 보수하는 작업이 끝난 후 다시 장례식장으로 팔려나갔다. 고차 다차 송이 국화만을 교체하고 팔려 나간 것 있었다.

# 지난 10일 오전 광주시 한 장례식장. 발인이 끝나자 인부들이 장례

식장 주변에 세워진 '근조(謹弔) 화환 20여개를 빼내 트럭에 싣고 자신들의 창고로 이동했다. 장례식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거의 일주일 두차례 이상 이렇게 조화 화환들을 가져갔다고 한다.

광주서부경찰이 11일 조화 수거권을 가진 장례식장 조화 납품업자들이 불법으로 조화를 재활용한 사실을 적발, 광주 지역 43개 장례식장에 납품

하는 조화 납품업자를 입건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조화를 수거한 후 일부를 다듬어 되팔아오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행간 혐의(사기)로 입건된 박모(48)씨 등 37명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C·J 대학병원 장례식장을 포함, 광주 43개 장례식장에 3단형 조화를 납품·판매하면서 조화와 장식을 재활용해 35여억 원을 챙겼다.

장례식장에 남은 조화를 수거한 후

시든 꽃이나 꽃대 등 장식품 일부를 교체하고, 정상가격인 10만원 받고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개당 5~1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겼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시든 꽃을 골라낸 뒤 새것이라며 납품하는가 하면, 재탕에 삼탕, 사탕까지 해 판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 조화를 공짜로 거둬가기 위해 업체들끼리 조화·장식품을 상주에게 사지 말기로 짜는 가 하면, 상주에게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수거비를 내야한다"고도 했

다. 이들에게 유족들의 슬픔은 보이지 않았고 '돈'으로만 인식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조화 수거와 관련해 장례식장과 1대1 계약을 한 뒤, 화단이나 운구차를 꾸미는 꽃을 납품하게 되는 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약금이 수천~수억원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장례식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광주도심 봄꽃 단장 11일 낮 최고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완연한 봄날씨를 보이면서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들이 진월동 도로변 화분에 팬지 등 형형색색의 봄꽃을 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안타까운 엄마의 절도' 본보 보도에 잇단 후원

###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도 지원 약속

신학기를 앞두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입힐 옷과 참고서를 훔치다 붙잡힌 30대 어머니 기사(광주 일부 3월11일 6면)와 관련, 광주시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민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는 11일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연락이 끊긴 뒤 홀로 생활하며 자녀를 돌보던 절도를 저지

른 최모(38)씨가 앞으로 삶의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광주시 서구도 남편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씨를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8살과 11살인 최씨의 두 아들이

다니는 A초등학교의 경우 서부경찰 지원 요청을 검토한 뒤, 방과후 교육활동비와 급식비 등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원우들도 최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 1기 회원인 문종철씨는 "최씨의 딱한 사연을 듣고 돕고 싶은 마음에 지속적인 후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이들이 밝게 자라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의사를 전해왔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광주지법 판사들 중·고생 멘토된다

### '1법관 1학교' 전담 멘토링 협약... 소통·교류 추진

광주지법 판사들이 지역 61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에 나선다. 판사들이 광주 지역 중·고등학교 한 곳씩 전담 멘토로 나서 학생들이 올바른 법률 문화를 고취시키는 한편, 사회 구성원 및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광주지법은 12일 광주지역 한 식당

에서 38개 중학교 및 23개 고교와 '1법관 1학교' 멘토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한 명의 법관이 학교 1곳을 전담해 담당 교사와 협의, 법원 견학, 진로 강의·법과과의 대화, 모의재판 체험·지도 등의 견학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그 학교 실정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강연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게 된다.

멘토 법관들이 이 기간 학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소통 기회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일부 법관들의 경우 자신이 다녔던 모교 멘토로 나설 예정이어서 선·후배간 유대 관계도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관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인기있는 교류가 아닌, 지속적인 실질적인 교류·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

### 의사협회, 주 40시간 '적정근무' 투쟁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10일 집단 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가 11일부터는 주 40시간 '적정근무'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개인가를 중심으로 '주 5일 주 40시간' 적정근무에 들어갈 것"이라며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6일 근무가 관습화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시킨다는 의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의원들은 수요 일이나 목요일에 평소보다 단축 진료로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것

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는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신 17일부터 가운에 검은 리본을 부착해 투쟁의 뜻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적정근무' 투쟁은 24~29일로 예고된 2차 휴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사태 해결의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의협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강하게 동참을 독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필뉴스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8분  
해질 18시 37분  
달출 14시 42분  
달몰 03시 50분

미세먼지 '보통'

구름 많다가 오후들어 비가 오겠다.

지역	기온	강수량
광주	2/12℃	0.2
목포	5/13℃	0.2
여수	6/12℃	0.2
나주	-1/12℃	0.2
완도	5/14℃	0.2
구례	1/12℃	0.2
강진	1/13℃	0.2
해남	3/14℃	0.2
장흥	0/13℃	0.2
순천	4/12℃	0.2
영광	1/12℃	0.2
진도	4/14℃	0.2
전주	3/13℃	0.2
군산	1/11℃	0.2
남원	1/12℃	0.2
홍산도	6/12℃	0.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6/9	1/9	0/13	2/14	3/15	5/16

###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 2.1명

### 한국, OECD 최저 수준

한국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 국민 1천명당 활동 중인 의사 수(practising physicians density per 1,000 population)는 2.1명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다.

한국의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는 2005년 1.6명, 2006년 1.7명, 2007년 1.7명, 2008년 1.9명, 2009년 1.9명, 2010년 2.0명, 2011년 2.0명, 2012년 2.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변함없이 OECD 최저다.

의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천명당 4.8명에 이른다. 이어 이탈리아(2011년 4.1명), 스웨덴(2010년 3.9명), 독일(2011년 3.8명), 스페인(2012년 3.8명), 스위스(2011년 3.8명), 노르웨이(2011년 3.7명), 체코(2011년 3.6명), 아이슬란드(2012년 3.6명), 덴마크(2009년 3.5명) 순이다.

28개국 중 한국(28위) 다음으로 의사 수가 적은 나라는 폴란드, 멕시코, 일본이다. 세 나라의 국민 1천명당 의사 수는 2.2명으로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 칠레, 그리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터키 등 6개국은 관련 자료가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적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지난 10일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일에 이어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연필뉴스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2014년 하나투어와 함께, 즐거운 여행되세요!

하나투어

### 무안출발! 산수 절경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 계림

2014년 04월 09일 ~ 2014년 6월 04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클럽메드 프리미엄** 을 인클루시브 서비스

-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있는 최고의 여행지
- 1일 3식 뷔페식으로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 프리미엄 주류 등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오픈바
- 프리미엄 주류는 서비스에서 제외
- 다양한 스포츠와 액티비티 프로그램

하나투어를 위한 지역별 초특가 상품

**복경 4일 420,000원 ~**  
출발일 3월 매주 화요일

**복경 5일 470,000원 ~**  
출발일 3월 매주 금요일

**세부 5일 1,000,000원 ~**  
출발일 3월 이후 ~ 일/월요일

**팜 4일 1,440,000원 ~**  
출발일 3월 이후 ~ 토/일/월요일

**계림 4일 1,099,000원 ~**  
출발일 수요일

**계림 5일 1,399,000원 ~**  
출발일 토요일

**[실속] 오아시스 6일 1,750,000원 ~**  
출발일 3월 이후 ~ 토/일/월요일

**몰디브 7일 2,040,000원 ~**  
출발일 3월 이후 ~ 토/일요일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료, 여행정보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공평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